

현장과 시각

호남 정치권의 방임



임동욱

서울취재팀 차장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을 놓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남에 2개의 광역경제권이 편성된 반면 호남은 1개에 그쳤고 선도 프로젝트에서도 호남권은 과거 정권에서 추진됐던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5개가 선정됐으나 영남권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10개나 배정됐다는 것이다.

또, 국가 산업단지 조성도 호남은 1개에 그친 반면, 영남은 3개나 신설된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사실상 '호남 죽이기'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전체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보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냈다. 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법안 및 예산 심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남에 무게 중심이 실린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의 이면에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영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확고한 공조 체계를 구축,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 제기에 나서는데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됐으며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도 지난 8월 중순부터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상황을 점검하기 보다는 안이한 자세로 손을 놓고 있다가 영남 편중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측에 호남고속철도, 연륙교 사업 등 과거 정권에서 시작된 계속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역의 기대와 엇박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개 지역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이 결합되면서 조만간 호남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번 광역 경제권 활성화 정책 논란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하한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갈수록 확대해치는 경제난에 한숨 짓는 지역민에 광주·전남 정치권이 분발,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tuim@kwangju.co.kr

내년부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한-미 비자면제 가입 '범죄예방 협력' 실무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로 금년내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예정대로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협정문안에 실무차원의 타결이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VWP 가입요건을 위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간다고도 언급했다.



美 핵 항공모함 日 입항

일본 요코스카미 해군기지에 배치된 기온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와 임무교체를 하기 위해 요코스카로 들어오고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일본에서는 핵 항공모함의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중서 관광버스 전복 한국인 1명 숨져 33명 부상

중국 지린성 국도에서 25일 오전 9시(현지시간) 관광버스가 전복돼 한국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 관광객 34명과 중국인 3명 등 37명이 탑승한 대형버스가 지린성 지안시에서 20km 떨어진 303번 국도에서 전복됐다고 보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안시 공안 변방대대 구조대원들은 이번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국 관광객 33명과 중국인 2명 등 35명 전원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박진용 주선안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이번 교통사고로 한국인 입건호(33·회사원)씨와 중국인 관광객인 등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부총영사는 "아직 부상자 명단은 입수하지 못했으나 영사 등 2명을 현장에 파견했으나 저녁 7시가 넘으면 명단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버스가 심하게 부서졌다. 버스 지붕이 없어졌으며 나중에 도로변 개천에서 발견됐다. 버스 참문은 모두 깨졌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지안시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구제안 통과 안되면 고통스런 경기침체 올 것”

부시, 의회 초당적 처리 압박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미국은 현재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미 동부 시간) 15분간 미 전역으로 생중계된 TV연설을 통해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대규모 구제금융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의회의 초당적 처리를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미국 경제의 전반적 위험에 처했다"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절제없는 개입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시 대통령은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신뢰가 광범위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의) 주요부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은행이 무너지고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금융의 목표는 부실자산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 자금이 다시 풀게 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한 회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에 이르게 한 허술한 규제구조를 재검토할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선(先) 구제금융 실시·후(後) 규제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향해서는 "많은 의원들에게 힘든 투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별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공화당의 존 매케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를 비롯해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25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케인 TV 토론 연기 요구

“모든 선거운동 중단”... 지지율 만회 ‘승부수’

오바마측 즉각 거부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4일 현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의 대통령 선거 토론회도 연기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측은 매케인 후보가 긴급 금융구제안과 관련해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합의해 놓고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 TV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이를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 개최 여부가 미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매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내일(25일) 아침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오바마 후보와 대통령 투표일인 11월 4일 자신의 결정(토론회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매케인은 현 의회가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조

지 부시 대통령에게 현 위기사태 해결을 위해 자신과 오바마 후보를 포함한 상·하원 지도자 회의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매케인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위기 사태 발생 이후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 캠프의 빌 버튼 대변인은 "이날 아침 오바마 후보가 매케인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회와 백악관에 초당적인 구제금융 법안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낼 것을 요청했으며 매케인도 동의했다는 뜻을 전화로 알려 왔다"면서, "그러나 불과 몇분후에 매케인측이 언론에 TV토론 연기와 유세 중단 입장을 발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초당적 노력 제안은 오바마측이 먼저 내놓았으나 정작 언론에는 매케인이 한발 앞서 나가는 발표를 함으로써 오바마 후보가 뒤를 추를 맞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중법률(주).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and features.